

## 2월 넷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한동대, 인도네시아·베트남에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 개소  
(<http://m.ksmnews.co.kr/view.php?idx=283770>)



인도네시아 "트럼프, 신수도 투자 관심...조코위와 만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172300104>)



첨단뉴스 젠서-쟁글-어댑터 등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진출 잇따라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4&idx=50629](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4&idx=50629))



관세청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28726625674456&mediaCodeNo=257>)

## 한동대, 인도네시아·베트남에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 개소

신일권 기자 / 2020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 현판식 성료  
왕충은 인도네시아 센터장과 박승훈 베트남 센터장 임명



↑ ↑ 인도네시아 창업혁신센터 현판식

[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한동대학교는 지난 17일과 19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동대는 왕충은 자카르타국제대학교 교학처장을 인도네시아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장으로, 박승훈 베트남 국민주택기구 차장을 베트남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왕 센터장과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 아구스 하르타디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어문대학 학장 외 13명이, 베트남에서는 박 센터장 및 뵘 띠 구옌 뜨랑 베트남 국민주택기구 총무부 차장, 정유석 베트남 국민주택기구 관리 책임자 외 4명이, 한동대에서는 지범하 교수와 안진원 교수 등이 행사에 참석해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 설립은 주ASEAN대한민국대표부, 숙명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2019.10.17.) 및 한-ASEAN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ASEAN 국가 내 고등교육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거점 센터로의 활용을 위해 추진됐다.

한동대는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를 ASEAN 국가 내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현지 사회 문제 해결 지원 등 ASEAN의 지속 발전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동대는 지난 1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한동-ASEAN 창업혁신센터를 각각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ASEAN 국가에 창업혁신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ASEAN 국가 기업인, 대학생 및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트럼프, 신수도 투자 관심..조코위와 만날 것"

성혜미 기자 송고시간2020-02-25 18:07

28일에는 토니 블레어·손정의, 조코위와 신수도 건설 논의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 관심을 보여 가까운 미래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다.



2017년 G20 행사장서 만난 조코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EPA 자료사진]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25일 "회담이 추진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수도 투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그러한 관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투자를 원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손정의, 조코위 만나 "인니 새 수도에 투자"  
[인도네시아대통령궁 제공]

오는 28일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재일교포 3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가 신수도 투자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CNN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신수도 건설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손정의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전경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1단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DSW)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최고의 기술과 혁신,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초청한다"며 투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전기차만 다니는 친환경 도시,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300억 달러(36조4천억원)~400억 달러(48조5천억원) 투자 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투자 의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

김지영 인턴 / 20190828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젠서-쟁글-어댑터 등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진출 잇따라

입력 : 2020.02.25 19:14

[첨단 헬로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12월에 발표했다.

KISA는 공모를 통해 국내 핀테크 1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현지 PG사, 송금업, P2P 대출, 자산관리 등 인도네시아 33개사, 베트남 20개사를 대상으로 IR 피칭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국내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독특한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IoT 플랫폼 '젠서'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  
제닉스 스튜디오(대표 이일희)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IoT 플랫폼 '젠서(xensor)'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 젠서를 소개하는 이일희 제닉스 스튜디오 대표

IoT 플랫폼 젠서는 이미 한국 테헤란로와 상암, 을지로의 대형 건물 6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IT업체와 적극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발공장에 IoT 통신망 공급을 시작했다. 제닉스 스튜디오는 이번 인도네시아 신발공장에 IoT 통신망 공급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IoT 플랫폼 '젠서(xensor)'는 번거로운 관리포인트들을 자동화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IOT(Internet Of Things)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IoT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반 IoT 플랫폼 젠서(xensor)는 건물 설비에 설치되는 센서(sensor)와 수집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신을 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구성된다.

제닉스 스튜디오 이일희 대표는 "일반적으로 7000평 규모 건물을 자산관리팀 6명 근무하는데, 젠서를 도입하면 2명의 필수 인력만 있어도 충분히 유지 관리할 수 있다"며 "별도의 통신망 설치가 필요 없고, 게이트웨이가 센서와의 통신을 충분히 제공해 통신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젠서 플랫폼은 블록체인 메인넷에 정보를 등록하고, 이 노드 정보를 활용해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암호화폐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 인도네시아 블록체인협회와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이 인도네시아 블록체인협회(이하 인니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니 협회는 연내 정비될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에 맞게 쟁글의 공시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미 상장된 프로젝트의 증빙 자료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할 때 그 근거로 쟁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쟁글은 이번 파트너십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권화 단계에서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쟁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인니 협회는 인도네시아 내 유일한 블록체인 협회다. 정책 당국 관계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산업 교육을 진행해 블록체인 대중화를 지원한다.

인니 협회에는 인도닥스(Indodax), 토크크립토(Tokocrypto), 레크닝쿠(Rekeningku), 코인원 인도네시아 등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이 소속돼 있다. 이들 거래소는 쟁글 파트너 거래소로, 쟁글이 제공하는 실사보고서(Due Diligence Report)를 상장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어댑터, 인도네시아 공식 서비스 3월 개시**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어댑터는 2020년 3월 인도네시아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활한 현지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 MICE 기업 로열인도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어댑터는 2020년 3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업계 뉴스, 콘텐츠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각종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 유저가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AMA' 등 참여형 서비스도 함께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어댑터는 로열인도그룹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서비스 오퍼레이션 현지화를 위해 협업하고 블록체인 MICE 비즈니스를 함께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로열인도그룹은 컨벤션, 금융, 부동산, 스포츠, IC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MF 연차총회, 이슬람경 제포럼 등 각종 금융 관련 국제행사를 기획, 실행한 바 있는 MICE 전문 기업이기도 하다.

/김원정 기자(etechn@hellot.net)

## 관세청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이진철 기자 수정 2020-02-26 오전 9:36:58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전면 시행  
관세·물류비용 연 56억원 절감.. 통관애로 해소 기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이 내달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했던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하고,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2016년 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라며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